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성료... 제이콥 브리즈먼 우승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가 19~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승자 제이콥 브리즈먼, 호세 무노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네시스



BNK경남은행, 금융사기 범죄 예방·방지 팔 걷어

BNK경남은행은 양산금융센터와 양산경찰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필호 BNK경남은행 금융센터장(오른쪽)과 김종규 양산경찰서 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GS건설,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 운영

GS건설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원도 철원 DMZ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임직원과 가족 80여명이 참여해 DMZ 생태계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GS건설



정인옥학술장학재단,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지원'

삼표그룹 정인옥학술장학재단이 최근 서울 광화문 본사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인옥학술장학재단 유용재 사무국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인옥학술장학재단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 ◆한국환경공단 ◇차·실장 인사 △대기환경사업단장 성기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최영준

부음

▲이재원(전 광주대 총장)씨 별세, 이진경(목포예담치과 원장)·장경(전 광주일고 교사)·회경(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윤경씨 부친상, 김완섭(남악힐링의원 원장)·서인환(현대건설 부장)씨 장인상=23일 오후, 빈소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25일. 062-527-1000

설상종목 사상최고 성적... 대한민국 종합순위 13위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

금메달 3개·은메달 4개·동메달 3개 최민정, 한국인 역대 최다메달 기록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사상 최초로 두 곳의 지명이 대회 명칭에 사용되었으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탈리아 북부 전역에 분산 개최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13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3개 이상과 종합 순위 톱10 진입' 중 금메달 목표는 달성했으나, 종합 순위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직전 베이징 대회



2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쇼트트랙 김길리, 심석희, 이소연, 신동민, 이정민, 피겨스케이팅 이혜인 등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금2, 은5, 동2)보다 전체 메달 수가 늘어났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의 저력과 설상 종목의 성과다.

쇼트트랙에서 김길리(성남시청)는 여자 1500m와 3000m 계주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선수단 유일의 2관왕에 올랐다. '살아있는 전설' 최민정은

계주 금메달과 1500m 은메달을 추가해 개인 통산 7개의 올림픽 메달을 달성, 한국인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의 불모지로 불렸던 설상 종목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이 나왔다. 스노보드 10대 유망주 최가은(세화여고)은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손바닥뼈가 부러지는 부상 속

에서도 대역전극을 펼치며 한국 설상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김상겸(하이원)이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유승은(성북고)이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황금 세대'의 탄생을 알렸다.

경기장 밖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봅슬레이 전설 원윤종은 IOC 선수위원 투표에서 1위로 당선되었으며, 김재열 ISU 회장은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서울시청)이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폐회식은 이탈리아의 자부심인 오페라를 테마로 꾸며졌다. 주세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시작으로 '아이다', '나비부인' 등 유명 오페라 주인공들이 무대를 장식하며 예술적인 폐막을 선언했다.

/최규훈 기자 ch9720@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S&P CSA '멤버' 등급

(지속가능성 평가)

3년 연속 ESG 경영 성과 입증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2026 지속가능 경영 연례 보고서'에서 멤버로 등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성과와 위험요인 관리 수준 등을 종합해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를 실시하고, 산업별 상위 기업을 선정·발표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평가에서 글로벌 전기부품·장비 산업 내 상위 15%인 '멤버'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4년에는 '멤버'와 '인더스트리 무버'에, 2025년에는 '멤버'에 선정되었고 올해도 '멤버'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ESG 경영을 인정받았다.

포스코퓨처엠은 탄소배출량 감축,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경영 강화 등



S&P 글로벌의 지속가능경영 연례 보고서 '멤버' 선정 엠블럼. /포스코퓨처엠

체계적인 ESG경영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50년 탈탄소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연료 전환, 공정효율 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텅스텐, 코발트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은 책임광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를 통해 ESG경영의 실행 계획,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등 책임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내달 15일까지... 참가자 전원 선물

오뚜기가 오는 4월 25일 부산 영하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제29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규모의 가족요리대회다. 지금까지 총 3600여 가족, 1만 3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가족이 함께 요리하며 소통하는 대표적인 가족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대회의 경연 주제는 '부산 대표 식재료와 오뚜기가 만나 선보이는

부산만의 스위트홈 메뉴'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오뚜기 제품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가족요리를 선보이면 된다.

참가 가족은 총 100가족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3월 15일 오후 8시까지,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요리대회 참가 가족은 3만 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참가비는 한국심장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참가 가족 전원에게는 ▲키자니아이용권(4인, 서울·부산 이용 가능) ▲캘컾 기프트 등 다양한 선물 등이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소진공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 모색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경기 남부지역본부 찾자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원 남문시장·행궁동 일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 이사장의 지난 20일 현장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권 현장의 성공 사례와 상인의 의견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 이사장은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방문해 핵심 주요 과제와 현안 사항 및 권역 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수원 남문시장과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크래프톤, 이강욱 신임 CAIO 선임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AI 연구개발·중장기 전략 총괄

크래프톤이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 직을 신설하고 이강욱 AI 본부장(사진)을 신임 CAIO로 선임했다.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톤은 23일 CAIO가 회사의 AI 연구개발과 중장기 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기존 AI 본부 체계를 한 단계 격상해 전사 전략 단위로 끌어



올렸다는 의미다. 이강욱 신임 CAIO는 2016년 미국 UC버클리 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9년부터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2022년부터는 크래프톤 AI 본부장을 겸직하며 학계와 산업 현장을 넘나드는 연구를 이어왔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양, '위험성평가 바이블' 발간

실무 중심 안전보건 관리 강화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레미콘 제조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위험성평가 바이블(BIBLE)'을 발간했다.

23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동양이 펴낸 지침서는 기존 위험성평가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했다.

'위험성평가 바이블'은 중대재해 처벌법 판시 사례를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